

“오월은 어린이 세상”... 가족과 주말 나들이 떠나볼까

●어린이날 광주·전남 문화행사 ‘다채’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 문화예술기관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부터 동심 가득한 어린이 전시, 아시아 문화 체험행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통연희극까지 다채롭다.

▶전남도립국악단 가야금 공연 모습



▼ACC창제작 공연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ACC서 창제작 공연 보고 아시아 장터도 즐기고 '다정다감' 어린이 전시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도

◇온가족 함께 즐기는 ACC창·제작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창·제작 공연을 선보인다.

ACC는 오는 4-6일 어린이극장과 예술극장 극장2에서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을 각각 공연한다.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은 우리나라 설화 속 용이 되기 전 상상 속 동물인 '이무기'를 소재로 한 공연이다. '용'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미르하이의 찢어진 동화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유색을 담은 무대에 국악을 가미한 창작 국악 동화극이다. 찢어진 동화책 복구를 위해 떠나는 인간 '미르'와 용 '하이'의 모험속 용기에 관한 이야기다.

공연 당일 극장 로비에서는 공연 포스터를 활용한 색칠하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1만원.

◇'다정다감' 어린이 전시 보러 미술관 나들이 주안미술관은 오는 3일부터 2024 어린이 기획전시 '아트 키카' 6번째 '다정다감'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들 시선에서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온정이 느껴지는 '나무 로봇'을 선보이는 김동인, 여인의 이미지를 통해 유기적 공동체를 표현하는 김찬희, 어릴 적 친근한 캐릭터를 팝아트로 보여주는 양재영, 가족과의 재미난 에피소드로 파스한 공감을 일으키는 오혜경까지 총 4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인도·튀르키예·파키스탄...아시아문화체험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ACC재단)은 어린이 날 연휴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상품, 예술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

화장터를 마련했다.

오는 4-6일 ACC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지는 '2024 아시아컬처마켓: 도시 속 문화장터'다.

올해 행사는 인도·튀르키예·파키스탄 등 아시아 15개국 셀러가 참여해 총 31개 부스를 운영한다.

마켓에서는 인도네시아 소품, 튀르키예 양탄자, 인도 허나, 파키스탄 수공예 등의 아시아 문화상품을 선보인다.

이어 캄보디아 꽃화관 꾸미기, 베트남 논라 모자 꾸미기, 중국 궁선(전통부채) 만들기, 일본 네코팔찌 꾸미기, 요요즈리(물풍선 낚시) 체험 등 아시아 각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숄샤·시슬릭, 중국 탕후루, 베트남의 생코코넛 음료 등 다양한 아시아 먹거리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 사자놀이, 중국의 변경, 베트남 피마오 등 아시아 공연이 펼쳐지며, 5일 오전에는 상무대 군악대 특별공연도 기다리고 있다.

◇'일쭉~!'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어때요?

국립남도국악원은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오는 4-5일 오후 3시 예음회의 전통연희극 '산중호걸 호랑님의 생일잔치'를 무대에 올린다.

술숙왕 호랑님의 성대한 생일 잔치를 열기 위해 동물 재주꾼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각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 이야기 포인트와 전통악기의 특징,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객 눈높이에 맞춘 작품이다.

관객 입장 시 LED 초를 배부해 호랑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하며 동물들과 버나놀이, 호랑이 탈 쓰기 등 참여형 체험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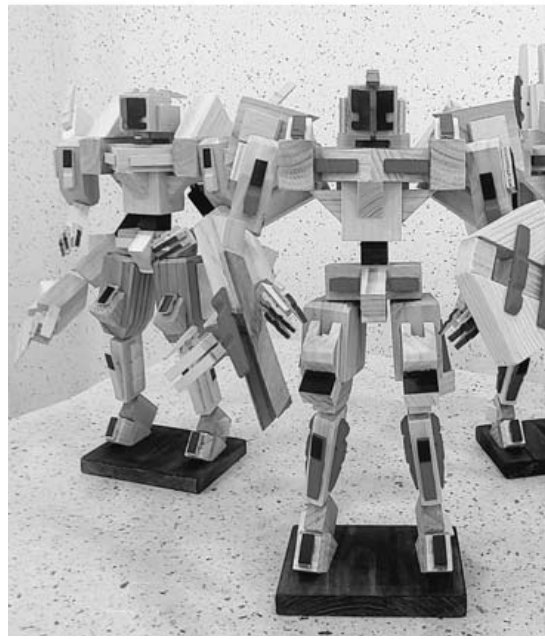
전남도립국악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4일 남도소리율리터 공연장에서 특집공연 '작은 씨앗 나빌레라'를 무대에 올린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해 특별 편성한 가무악회 공연으로, 전남도립국악단 소속 어린이 단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남도민요 '동백타령'을 편곡한 가야금 병창 3중주 '동백'을 시작으로 비주춤, 판국 연희마당 등 전통 국악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5인 5색 무용 솔리스트들의 창작무 '풍류바람과 놀다', 친숙한 동요 메들리와 함께 옛 추억을 소환하는 25현 가야금 합주 '야금야금 플레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기자



▼김동인작 '나무로봇'



장희구 박사 (550)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還目魚(환목어)[6] - 택당 이식
名稱是外飾 委棄非汝疵(명칭시외식 위기비여자)
洋洋碧海底 自適乃其宜(양양벽해저 자적내기의)
이름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하고
버림을 받는 것 그대 탓이 아닌데
저 푸른 깊은 바다에 그대 모습 아니리.

이름으로 버림받는 것, 그대 탓만이 아니라네



흔히 '말짱 도루묵'이란 말은 애써 벌여 놓은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 헛일이 되고 말았다는 관용적 표현이다. 목어가 은어로 승격돼 좋다 싶었는데 도로 목어가 됐으니 좋다 말았다는 뜻이겠다 싶다. 한편 그물이 목직해 잔뜩 기대했으나 쓸 생선은 없고 허잖은 '돌목'만 걸려 올라왔다는 의미로 읽을 수

도 있어 보여서 둘 다 통한다. 넓고 넓은 저 푸른 바다의 깊은 곳에, 유유자적하는 것이 그대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이름으로 버림 받는 것 그대 탓이 아니라네(還目魚)로 제목을 붙여 본 율(律)의 6수인 오언율시풍이다.

작가는 택당(澤堂) 이식(李穡:1584-1647)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주자학을 정도로 신봉한 중세 봉건시기의 전형적인 지식인으로 유가(儒家)의 현실긍정적인 세계관을 고수했던 인물로 알려진다. 이단과 연사류가 만연하는 당시의 문풍을 크게 비판하면서 유가의 경전을 모범문(模範文)으로 인식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이름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한 것일 뿐 / 이로 인해서 버림을 받는 것이 그대 탓이 아니라네 // 넓고 넓은 저 푸른 바다의 깊은 곳에 / 유유자적하는 것이 그대 모습 아니겠나'라는 사상이다.

위 시제는 '임금님 돌아가자 다시 목어(目魚) 되었네 6'로 번역된다. 여섯 구나 된 중장시문기에 첫 구에서 인용했던 사상을 떠올려 시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시인은 첫 구에서 '목어라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 해산물 가운데서 품질이 낮은 거라 // 번지르르 기를진 고기도 아니네다 / 그 모양새도 볼 만한 게 없었다'고 하면서 맛도 없고 볼품도 없다는 사상 주머니였다.

시인은 맛없거나 모양새뿐이야 볼품은 없지만 그것이 고기의 잘못이 아니라 시상주머니를 만지게 된다. 도루묵이란 이름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 버림을 받는 것이 그대 탓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현상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생김새와 진심을 같은 선상에 놓은 사람도 많다.

화자는 비록 사람들의 사랑은 폭넓게 받지는 못하지만, 바다에서의 처지는 자못 다르다는 사상을 떠올린다. 도루묵처럼 넓고 넓은 저 푸른 바다 깊은 곳에서만은 유유자적하는 것이 그대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자기의 생활 여건이나 처지에서 오직 그 자체에 만족하는 또 다른 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상의 이면을 보게 된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名稱: 이름이라고 칭하다. 是: 이다. 동사로 쓰임. 外飾: 겉치레. 외부 장식. 委棄: 버림을 받다. 非汝疵: 그대의 탓이 아니라네. '汝'는 목어인 '도루묵' 자체를 뜻함. // 洋洋: 넓고 넓다. 碧海: 푸른 바다. 底: 깊은 곳. 自適: 유유자적하다. 乃: 이에. 바로 이것이. 其宜: 그게 마땅하다. 그 모습이다.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